

익산-원광대-베트남 끈뚝, 우호 교류 '물꼬'

의료 메디컬 · 유학생 교류 · 한약재 재배 등 상호 협력

베트남으로 글로벌 산학협력사업 확대 위한 필요성 증대

익산시와 원광대학교는 최근 베트남 끈뚝성 응우옌 반 화 성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제 사회분야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끈뚝성(湄潭省)은 베트남 중부 내륙에 있는 성(Province)으로 농업이 산업의 주를 이루며, 전체 면적(9,614km²)의 절반 이상이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고 풍광이 아름다워 자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다. 베트남 끈뚝성 대표단은 시청 홍보

관에서 양 지방정부 간 첫 번째 교류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공동 발전과 우호 협력을 다져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산업·문화 연계 프로그램인 의료관광 분야를 활성화 하고 원광대를 중심으로 한 유학생 교류 지원, 인삼을 비롯한 고품질 한약재 재배에 이르기까지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공동의 번영을 도모해지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의 의료역사문화관인 메디스토리

(Medistory) 관광 콘텐츠 설명회 참석을 공식 일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동문기업과 연계 글로벌 산학협력사업 추진방안, 한약 및 의공학 산업 기술공유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2015년부터 원광대학교병원에서는 베트남에서 해외의료봉사 및 보건교육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올해 1월 LINC+사업단에서는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제품

을 스스로 설계, 기획, 제작하는 실무형 융복합 인재를 양성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한·베트남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최근 베트남으로의 글로벌 산학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익산시 대표기업인 하림 육가공 공장과 계열농장을 방문하여 선진적 축산영농에서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돌아보고 주얼리 업체인 신라보석 및 보석박물관 견학을 통해 한국에서 주얼리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위상을 알리고 산업간 교류와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다방면에 걸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양국관계에서 베트남 끈뚝성과 익산시가 장기적으로 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주민주도형 건강사업 추진 '결실'

군산시보건소, 복지부장관상

군산시 보건소가 지난 17일~18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18년 제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시례공유를 통해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최됐다. /군산=김정훈기자

시 보건소는 지난해 군산시민들의 건강생활을 확산시키는데 도모하고 보건사업에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주민주도형 건강사업을 추진한 내용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추진전략부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2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문동신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관과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상용차 자율주행 재원확보 논의

군산시, 4차 산업혁명 대응 · 국가예산 확보 추진 보고회

군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문동신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관과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 IT 가동 이후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계획 구체화 및 부서검토 과정을 거쳐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된 25개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우선 과제인 상용차 자율주행, 스마트 농생명 분야에 대해서 재원확보 및 조속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됐으며 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코딩 및 3D프린팅 등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체험 및 교육시설 조성사업은 파급효과 큰 만큼 추경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TF회의를 활성화하고 정부정책과 추진 동향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는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금까지의 중앙부처 환

등상황을 국소별로 보고했으며, 대응 논리 개발 및 문제점, 대책 등을 논의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시의 주요 건의사업은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 기반구축사업,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해양로 확장,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 등 1,349억 원 예산의 신규사업 33건이다.

또한 중대형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근대형민원서민 건립사업,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비응향 정온도 개선사업 등 13359억 예산의 계속사업 286건으로 총 1조 1,708억 원 예산의 299건이 해당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역 산업전체가 위기상황에 빠지고 지역경제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 4차 산업 및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비전과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의 지속적 발굴 추진과 계속사업의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발 빠른 대응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활동을 통해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통해 반드시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올 군산시간여행축제 담금질 본격화

프로그램 부스운영 퍼레이드 참가자 25일까지 모집

군산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2018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대행사를 선정해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본격 담금질에 들어갔다 20일 밝혔다.

대행사 선정을 시작으로 시간여행축제의 세부 계획 등 본격적인 축제준비가 시작됐으며 올해의 축제 콘셉트 중 하나인 '시간여행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간여행축제의 프로그램과 부스 운영 및 퍼레이드 참가자를 5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시간여행 공모는 축제의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시간여행축제에 걸맞은 프로그램과 부스 운영으로 ▲시대별

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부스(1930s~1940s, 1950s~1960s, 1970s~1980s, 1990s~현재까지) ▲유치원·유아 체험프로그램(부스) ▲항구도시 군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부스)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부스) ▲야간에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있는 야간프로그램(부스) 등이다.

향후 심사를 거쳐 당선된 프로그램 및 부스 운영자에게는 운영비와 재료비, 퍼레이드 참가자에게는 소품제작 및 의상 대여료 등을 지원하며, 아이디어가 우수하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팀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관광진흥과(☎454-330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군산시는 주거취약 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2018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3억 1,2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78가구 중 20가구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했으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 동절기 이

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자활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사업 참여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환경을 한 단계 더 높여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군산을 만들 수 있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지속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지역복지 발전 위해 씬없이 뚝다

익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심의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해석)는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이번 회의는 읍면동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와 실정을 반영해 발굴된 2018년도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유창수 복지청소년과장이 읍면동 협의체 성과 및 2018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계획을 설명한 후 29개 읍면동 협의체에서 제출한 4개 분야(복지대상자 발굴·지역자원 발굴·동행나눔·활동홍보분야) 102개 지역특화사업들을 공유하고 주요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의했다.

2017년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74개에서 올해는 30여개가 증가하여 읍면동과 읍면동 협의체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자원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해석 민간공동위원장은 "읍면동과 읍면동협의체에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익산시 복지바탕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29개 읍면동 협의체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익산시와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 한해동안 민·관네트워크 강화 및 시민의 복지접근도 향상을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익산시 복지바탕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군산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